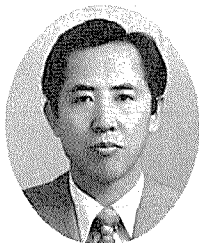


石油産業의 当面課題와 進路



徐 孝 重
(大韓石油公社·副社長)

1. 概 況

70년대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石油問題가 세계의 정치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모멘트로 등장하자 西獨의 슈피겔誌는 이를 해학적으로 풍자하여「지구는 石油를 축으로 자전한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非産油開發途上國家중에서도 총에너지의 70%이상을 해외에 의존해 있으며, 특히 石油依存度가 64%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실감나는 표현으로서 韓國經濟야말로 石油를 축으로 自轉하고 發展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 1차 경제개발 5차년계획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된 大韓石油公社의 蔚山精油工場이 준공된 64년 당시 전체 1차 에너지중 9.4%에 불과하던 石油類消費가 70년대 고도성장과 더불어 79년에는 64.4%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石油需要의 GNP 彈性 值역시 70~80년간 평균 1.40에서 79년도에는 1.71로 확대되었고, 80년도에는 5.7%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석유류소비는 1.0%감소에 그침으로써, 석유류수요는 경제성장율을 상회하는 높은 탄력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시에는 수요의 하방 경직성이 있어, 石油의 安定的 供給은 경제개발 계획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다. 國內 精油社는 그간 이러한 국가적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2차례의 石油危機속에서도 제품의 需給安定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韓國 石油産業은 중대한 전환점에서 혹독한 試練과 새로운 挑戰에 직면해 있다.

일단 精油工場을 세우기만 하면, 높은 收益性, 安定性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사회적 통념속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재벌기업들은 精油工場의

신·증설 계획에 각축을 벌여 왔고,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또는「폭리기업」의 대명사로서 일반여론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던 국내 정유사들은, 기실 국내 製造業평균이나, 電氣業에 비하여 낮은 수익성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石油産業의 위기설이 나올 만큼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80년도 決算결과, 精油事業에서 총 1,869억원의 赤字를 기록하였으나 석유기금에서 1,617억원의 특별보전을 받고 각사의 비정유사업에서 290억원의 稅前利益을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稅後 총 484억원의 영업 결손을 초래 하였다.

실상가상으로, 81년도 상반기중 精油事業에서 1,090억원의 赤字를 기록 하였고, 換率이 정부의 방침대로 연간 5%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도 하반기중 650억원의 추가 결손이 예상되어, 非精油事業에서 149억원의 利益을 실현하여도, 81년도 총 1,591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어 80년도 油公의 재평가, 湖油의 유상증자 및 雙龍의 출현으로 총 625억원의 자기자본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81년말 국내 石油産業은 自己資本이 없는 즉 부채가 총자산을 상회하는 사실상 기업도산의 운명에 놓여 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퇴와 함께, 재고자산이 2,400만 배럴로 許容한계에 육박해 있고, 石油類消費構造 자체가 값싼 액체연료에서 비교적 값싼 氣體燃料로, 重質油에서 中輕質油 쪽으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으며, 정부의 5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石油依存度를 81년 60.3%에서 86년에는 50.2%로 크게 낮추는 대신 이를 非精油社를 통하여 가스(LPG, LNG) 및 原子力으로 代替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기존 精油社의 위치는 현재에 비추

어 크게 위축될 展望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世界原油의 可採年數가 30년에 불과하고, 현재 世界에너지 需要의 41%를 차지하고 있는 石油에너지가 85년에는 36%, 2000년에는 25%, 2020년경에는 12%로 크게 축소될 展望임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5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6년도의 石油依存도가 50.2%나 될 것으로 보여, 石油은 여전히 主宗에너지로서 석유의 安定的 공급이 향후 경제개발 계획에서도 중요한 關鍵이 될 것이다.

또한 2차 오일쇼크 이후 OECD국가들의 경기회복 지연 및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原油供給過剩 및 가격인하 현상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石油資源의 절대적 有限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오일쇼크는 이전에 비하여 훨씬 가혹할 것으로 展望되며 특히 국내精油社가 도입하고 있는 原油의 89%가 정치 및 종교적 여건이 불안한 中東地域에 편중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악화될 세계원유시장에서 原油의 安定的 확보를 통하여 국가 경제개발에 필요한 主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할 精油社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다.

이에 따라 國內石油産業은 이제 단순히 石油에너지를 공급하는 企業에서 탈피,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할 중대한 挑戰에 직면해 있다.

2. 에너지 需給 展望

1. 세계에너지 需給과 石油

세계석유의 확인매장량은 총6,416억 배럴로서 가채년수가 30년에 불과하고, 이것마저도 中東 北美 및 共產圈에 75% 이상이 賦存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각종에너지 전문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석유의 窮極可採埋藏量(URR)은 1조 9천억 배럴에 달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石油의 가채년수는 50년에 불과할 것으로 展望된다.

뿐만아니라, 80년 현재 世界生産原油의 평균 비중은 API 33.7°로서, 매년 0.1°~0.2°씩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제품수요는 평균40°에서 점점 경질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며, 輕質原油의 매장량은 전체의 40%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低硫黃 경질원유는 5%에 지나지 않아, 현재 전세계적인 제품의 경질화 추세와 함께 환경보전의식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低硫黃 경질 원유의 需要는 가속적으로 늘어날 展望이다. 따라서, 점차 高유황, 중질화 되어가는 세계원유 시장에서, '저유황 경질화' 되어가는 석유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세계精油産業은 머지않아 기존 精製施設로서는 低硫黃 및 경질유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이 도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原油매장 및 製品生産現況

(單位: %)

	原油매장현황			製品生産現況		
	高유황	저유황	計	高유황	저유황	計
輕質油	35	5	40	35	25	60
重質油	45	15	60	30	10	40
合 計	80	20	100	65	35	100

그러나, 1,2차 오일쇼크 이후 현재의 높은 石油價格 수준은 重質油 및 타르샌드, 오일샌드의 회수 경제성을 증가시켜 石油의 가채매장량을 2배이상 증가시키고 있다.

重質油는 일반적으로 API 20° 이하(비중 0.934 이상)의 原油를 말하며,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전통적인 原油매장량 4천5백억 배럴과 비교하면 重質油는 무려 3조배럴로 추산된다.

資投 코스트면에서 전통적인 原油開採과 비교해 볼 때, 北海油田의 경우 하루 1배럴 생산을 위하여 1만달러가 소요되는데 비하여, 重質油의 경우 1.5~2.5만 달러에 이르며, 타르샌드에서 기름을 추출하는대는 2.5~3.5만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重質油의 경우, 80년대에 부분적으로 石油供給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타르샌드는 기존 확인 원유매장량이 거의 고갈되어가는 금세기 말이나 2000년대에 가서야 開採이 시작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금세기 말까지는 石油가 石炭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에너지源으로서 사용될 것이며, 2000년경부터 石油의 比重이 급격히 줄어드는 대신, 石油의 부족분을 초기에는 주로 原子力이 대신하다가 점차 비전통적 석유 및 가스, 또는 본격적인 代替에너지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개괄해 볼때, 80년대 중반에 이르면 石油不足이 深化될 것이며, 85년경에는 소련이 강력한 석유수입국으로 전환될 조짐에 따라,

○ 特別企劃 ○

세계석유시장은 소요원유의 절대량 부족에 따른 高油價와 함께, 정치 및 경제문제가 혼합된 복잡한 양상을 띄게되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世界에너지 需給展望

(單位：%)

	1975년	1985년	2000년	2020년
石油	41	36	25	12
가스	18	19	22	14
石炭	25	26	28	28
原子力	1	5	9	22
水力	5	6	6	7
비전통적석유/ 가스	-	-	2	7
재생가능에너지	9	8	8	10
합계	100	100	100	100

(資料) : 80년 11차 에너지회의(WEC), 절약위원회 보고서 ; World Energy Balance 2000~2020

2. 国内에너지 需給과 石油

1) 韓國經濟開發計劃과 石油産業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石油에너지의 安定的 供給없이는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精油工場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채택하여, 日産 3만 5천배럴 규모의 蔚山精油工場이 가동하던 64년 당시 89%의 石炭에 비하여 9.4%에 불과하던 석유수요가, 79년도에는 32%로 떨어진 石炭수요와는 대조적으로 石油가 총에너지의 64.4%를 차지하게 되었고, 精油施設 能力도 81년 현재 日産 79만 배럴로 증가하였다.

에너지源別 消費推移

(單位：%)

	1964	1972	1979	1981
石油	9.4	54.9	64.4	63.5
石炭	44.3	26.7	24.5	26.5
신탄	44.7	16.9	7.6	6.2
水力	1.6	1.5	1.5	1.9
原子力	-	-	2.0	1.9
합계	100	100	100	100

※ 주 : 제철용 유연탄 제외

정제 시설 확장 추이

(單位：천B/D)

1964	1972	1979	1981
35	400	580	790

이와같이 높은 石油依存도와 함께, 石油소비는 GNP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계획은 에너지 과소비형인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경제사정에 대한 에너지소비증가율(에너지의 GNP彈性值)이 높고, 특히 石油의 GNP 탄성치가 70~78년간 1.40을 기록하여, 美國의 1.14, 日本의 0.85, 西獨의 0.77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이며, 79년도에는 1.71을 기록함으로써 경제성장률에 따라 石油依存도는 점점 深化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에너지 소비증가의 국제비교(1970~1978)

	소비증가율(%)		경제성장률(%)	탄성치	
	총에너지	石油		총에너지	石油
韓國	8.5	14.0	10.0	0.85	1.40
美國	1.8	3.3	2.9	0.62	1.14
西獨	2.2	2.4	3.1	0.71	0.77
日本	4.2	5.3	6.2	0.68	0.85

※ 註 : 韓國은 GNP, 나머지는 GDP 기준

또한 우리나라 총에너지의 源泉別, 部門別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石油는 74%를 산업용으로, 16%를 수송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石炭은 가정·상업용으로 90%를 사용하는 대신 신업용으로는 9%에 지나지 않으며, 電氣의 경우 79%가 石油를 이용한 火力發電으로서 81%이상을 산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에너지源別 부분별 소비실적

(77년 기준)

(單位：%)

	石油	石炭	電氣
산업	74.3	8.6	81.2
수송	15.7	-	-
가정·상업	7.6	90.1	14.9
기타	7.4	1.3	3.9
합계	100	100	100

뿐만아니라 産業에 소비되는 石油의 利用效率面에서 살펴보아도 농·임업, 광업, 상업을 제외한 全産業 부문에서 石油의 실질 투입액을 실질 산출액으로 나눈 '石油投入比重'이 日本에 비하여 크게 높은 실정이며, 製造業의 경우 76년 현재 日本의 1.9%에 비하여 韓國은 78년도에도 3.2%나 되며, 全産業을 종합하더라도 日本에 비하여 2배나 높은 실정이다.

韓·日의 産業別 石油投入 構造 (단위: %)

	韓 国		日 本	
	70년	78년	70년	76년
농 립 · 어업	1.3	1.9	2.1	3.1
광 업	2.8	3.4	11.6	14.9
제 조 업	3.3	3.2	1.9	1.9
· 경 공 업	2.7	2.4	1.3	1.3
· 중 화 학	4.1	4.0	2.3	2.2
全 産 業	4.0	4.1	2.1	2.0

또한 79년도 韓國銀行이 개발한 '短期經濟豫測模型'을 일부확장하여 石油價格의 상승과 經濟成長率과의 관계를 Simulation한 결과에 의하면, 석유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23% 포인트鈍化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都壳物價上昇률은 직·간접효과를 포함하여 2.17%포인트가 되며 賃金 상승에 따른 도매물가 상승압력까지 감안하면 총과급 효과는 2.76% 포인트에 달하며 原油價 10% 인상이 우리나라 國際収支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약 6억달러의 추가부담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石油類價格은 國家經濟發展에 직접 간접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는 精油産業의 損益을 break-even으로 하는 강력한 石油統制를 실시하여 왔다. 따라서 국내 石油산업은 일반 製造業이나 2차에너지로서의 韓電에 비하여 극히 낮은 收益性을 감수하면서,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의 所要에너지 主供給體로서 製品의 需給安定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구조 자체가 石油依存도가 높은 데다, 에너지 過消費型으로 석유의 이용효율이 극히 낮은 상태에 있어,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과정에서 輸出競爭力을 약화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정부의 제 5차 5개년 계획에서는 강력한 에너지 節約과 함께, 적극적인 代替에너지 開發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主宗에너지로서 石油消費는 80년 하루 51만 배럴에서 86년도에는 69만 배럴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油公이 하루 15만 배럴의 增設공사를 완공함으로써 하루 100만 배럴의 시설능력을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80년대 石油難時代를 충분히 감안하여 석유의존도를 86년까지 50.2%로 대폭 축소한 최소한의 필요물량이라는 점에서도 石油의 安定的 確保는 8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2) 國內에너지 需給展望과 石油

우리나라는 非産油開發途上國家中에서도, 특히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貧國으로서, 1차에너지중 石炭자원은 채탄규모의 영세성 및 채탄여건의 惡化에다 채탄기제화도 불과 8%에 그쳐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代替에너지로서 추가 개발이 가능한 포장水力 및 潮力 역시 각각 176만KW, 170만KW에 불과함으로써 대체에너지의 賦存資源마저도 한계에 달하여 있는 실정이다.

또한 原油供給先의 偏在과 함께 주요 輸入에너지의 대부분을 單純輸入方式에 의존해 있어 海外資源 輸入이 극히 미진한 실정이고, 石油備蓄문제가 아직 담보상태에 있어 세계 에너지 자원난에 대해 저항력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原油供給先의 地域的 편중

	中東의존율	導 入 先	메이저의존율
韓 国	89%	7개국	42%
日 本	66%	22개국	44%

석 유 비 측 比較

韓 国	日 本	西 独	美 国	臺 灣
45일	110일	131일	73일	90일

따라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제 5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7~8% 목표로, 총에너지 수요는 연평균 7% 신장하여 81년도 석유환산톤 4천 8백만톤에서 86년도에는 6천 7백만

總에너지 需給計劃

(82~86)

(단위 : 석유환산 톤톤)

구 분	81		82	83	84	85	86		82-86 증가율
		%						%	
石油	28,809	60.3	31,109	32,465	32,110	31,798	33,568	50.2	3.1
天然가스	-	-	-	-	-	1,560	1,950	2.9	-
무연탄	10,198	21.3	10,618	11,202	11,452	11,575	11,829	17.7	3.0
유연탄	4,939	10.3	5,764	6,970	9,312	10,578	10,627	15.9	16.6
水力	537	1.1	535	537	536	690	726	1.1	6.2
原子力	774	1.6	913	1,484	3,153	4,561	6,561	9.8	53.3
신탄	2,517	5.3	2,343	2,260	2,131	1,913	1,575	2.3	△ 9.0
總에너지	47,774		51,282	54,918	58,694	62,675	66,836		-
증가율	-		7.3	7.1	6.9	6.8	6.6		6.9
GNP탄성치	-		0.97	0.95	0.92	0.91	0.88		0.92

※ 註 ; 非에너지油, 製鐵용 유연탄 포함

톤으로 기간중 약40% 증가할 것이며, 국내 자원의 海外依存度가 81년 71.5%에서 86년에는 78.9%로 더욱 심화될 것이나, 石油의존도는 50.2%로 10.1% 낮추는 대신 이를 주로 原子力, 가스 및 有煙炭으로 代替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① 發電燃料의 石油편중에 따라 국제 석유 시장에 의한 공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脫石油電源 開發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총에너지의 1.6%에 불과한 原子力을 86년도까지 9.8%로 늘리기 위하여, 86년까지 총 6기의 原子力 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원자력 발전비중을 81년현재 6%에서 27.1%까지 향상시키며 有煙炭발전소를 4기 건설하고, 仁川 및 平澤화력 발전소를 LNG로 대체하며

○ 연료발전의 석유편중

석유	원자력	석탄	수력	계
78.7%	9.3%	6.7%	5.3%	100.0%

○ 발전계획

	1981	1986	1991
석유발전	74.2%	35.0%	18.5%
원자력발전	6%	27.1%	41.5%

② 에너지源의 多元化 및 長期 安定的 確保를 위하여 83년까지 연간 100만톤 규모의 LPG 및 86년

까지 연간 300만톤 규모의 LNG 수입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③ 따라서 重質油수요는 發電用연료의 대체로 인하여 대폭 減少될 展望이며, 경제발전의 결과로 輸送부문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86년도에는 수송부문의 소비가 39%로 産業부문 보다 비중이 커지고, 91년도에는 48%에 달할 것으로 展望되어, 国内石油産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原油確保 및 施設代替를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3. 石油産業의 当面課題

현재 세계적인 原油의 供給過剩 및 일부 原油價格의 下落에도 불구하고 세계 石油産業은 消費不振 및 需要代替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이는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른 需要의 減退 및 脫石油 政策에 따른 수요대체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현재의 석유류소비는 최고수준을 보인 79년도에 비하여 11% 감소함에 따라, 美國을 비롯 英國, 日本, 西独 등 주요선진국의 정유공장들은 最少限의 稼働率을 유지하거나, Shut-down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석유류 제품수요가 低硫黃, 輕質化 되어가는 추세에 비하여 공급원유가 점차 高硫黃, 重質化 되어감에 따라 이를 어떻게 가공처

리하여 수요를 충족하느냐 하는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美國의 석유업계가 금년 1/4분기중 利益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3월말 현재 석유류 소비가 전년동기대비 7%나 감소함으로써 在庫가 3억배럴까지 육박하여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1개 정유공장중 10%이상이 Shut-down중에 있고, 나머지 정유 공장들도 겨우 68%의 가동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製品價格引下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값싼 사우디原油에 의존하고 있는 Exxon, Texaco, Standard Oil에 비하여, 비교적 값비싼 原油에 의존하고 있는 Gulf Oil의 경우 대폭적인 이익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需要의 輕質化에 따른 施設投資를 위하여 500억달러의 시설투자 자금이 필요하며,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연방세법(U.S Tax Law)을 통하여 이를 보조해 주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原油의 生産부문과 자본관련이 없이 운영되는 소위 獨立精油會社(Independent Refineries)들은 마진의 축소 때문에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를 美政府에 요청하고 있으나, 大企業에 의하여 흡수 竝合될 처지에 놓여 있다.

日本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여, 특히 非Aramco系 회사의 경우 存立의 危機에 직면해 있다.

80년도 日本석유업계는 79년을 上廻하는 功전의 好況을 누렸으나 이는 주로 円貨의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서, 換差益을 뺀 수익실태는 오히려 惡化되었으며, 81년도 油類消費減少와 円貨가치하락의 二重苦를 안고 있는 일본 석유업계는 81년도 상반기 중 총 4천억~5천억 円의 경상적자를 나타내었고, 환율이 6월 평균인 달러당 225円으로 유지될 경우 81년도 총 赤字는 1조 5천억원 ~ 1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日本 資源에너지應의 15% 減産지도가 앞으로 2-3개월 계속되고 6월 현재의 원유 및 제품 가격하에서 円貨가치가 약간 상승하여 1달러당 215

円으로 유지된다 하여도 9천5백 ~ 9천6백억 円의 營業缺損이 예상되어 75년 1차 오일쇼크에 따른 2천2백 円의 적자를 무색케 하고 있다.

따라서 현상태로 나아간다면 赤字는 계속 累増되어 갈 것이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외의 비싼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회사의 경우 負債總額이 資産총액을 상회하여 사실상 倒産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 직면하자, 日本은 8월중 8%의 油價引上 및 1천억 円의 資金放出로 정유업계의 구제에 나서고 있으며, 구조불황법을 적용, 石油업계의 合理化를 유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省에너지의 추진과 石炭 및 LNG에의 연료 전환등 산업계의 脫石油 추세로 重油의 공급과잉이 두드러져 重油의 輕質化 대책을 본격화 하고 있으며, 日本정유업계의 장기적인 경영체질 개선을 위하여, 日本政府는 現在 13개사로 난립해 있는 石油會社를 3개사 정도로 계열화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日本開發銀行의 石油融資를 유도키로 하는 등 日本 국내석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계와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石油産業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利益수준이 낮고, 不安定하며 企業體質도 취약하다.

75~79년간 국내 정유업계의 売出額 利益率は 1.4%로 製造業의 2.4%, 2차에너지로서 電氣業의 9.8%에 비하여 수익성이 극히 낮은 수준이며, 負債비율이 377%로, 제조업의 363%, 전기업의 168%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할 뿐 아니라, 자본축적이 제조업이나, 전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상태에 있다.

더우기 80년도 결산결과 국내精油 5社は 2차 오일쇼크에 따른 石油價引上, 원화평가절하 및 변

財 務 構 造 比 較

	75~79년			80년		
	제조업	석유산업	전기업	제조업	석유산업	전기업
매출액이익률(%)	2.4	1.4	9.8	- 1.1	- 1.0	11.3
부 채 비 율(%)	362.8	376.7	167.5	487.9	1424.1	259.7
자기자본증가율(%)	26.3	15.7	35.3	15.8	9.6	32.9

○特別企劃○

동환율제 실시에 따른 換率의 급격한 上昇으로 因하여 정유사업에서 총 1천 8백69억원의 적자를 나타내었으나 石油安定基金을 통하여 1천 6백17억원의 특별보전을 받고, 비정유사업에서 2백90억원의 稅前利益을 실현하여 총 4백84억원의 결손을 나타냄으로써 정유회사의 자기 자본액 1천 3백 49억원의 30%의 자본잠식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80년도 油公의 재평가 실시, 湖油의 유상증자 및 雙龍精油의 출현에 따라 총 6백25억원의 자기자본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일단 장부상 자기자본의 잠식은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80년

상반기중 정유사업에서 총 1천90억원의 영업결손을 나타내었으며, 하반기중 6백50억원의 추가 결손이 예상되어 비정유사업에서 1백49억원의 세전 이익을 실현하여도 81년도 총 1천 5백91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계속한다면 81년도 국내 석유산업은 80년말 자기자본 1천 4백 79억원을 완전히 잠식하여 부채가 자산을 능가하는 사실상 企業倒産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와같이 낮은 收益性, 취약한 財務構造 하에서 국내 석유산업은 지난해부터 누적되어온 극도의 수익성 악화로 말미암아, 에너지 및 석유산업에 再投資기반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요감소에 따른 在庫累增, 석유 기금부족에 따른 원유손실미보전, 외화부채 증가에 따른 막대한 資金負擔으로 기업경영이 극히 위험한 상태에 까지 도달해 있고, 국내 석유류 소비구조 자체가 서서히 가스 및 輕質油쪽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금번 5차5개년 계획에서는, 그간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에서 精油社의 높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新規 에너지 산업에의 再投資 또는 參與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국내석유산업의 위치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하겠다.

최근 우리나라 石油類消費構造를 살펴보면 전체

年度別 損益현황 (78~81)

(단위 : 억원)

	78	79	80	81(추정)
(1) 稅前 - 안정기금에서특별보전이전 精油事業	249	△ 311	△ 1, 806	△ 1, 740
非精油事業	229	336	287	149
계	478	25	△ 1, 519	△ 1, 591
(2) 특별보전	-	407	1, 617	-
(3) 稅 後	285	194	△ 402	△ 1, 591

석유류제품消費構造변동추이

(단위 : %)

유 종		연 도					
		73	75	77	79	80	'81(상)
휘 발 유	고 급	1.9	1.2	1.5	1.4	0.9	0.6
	보 통	4.7	2.4	2.8	3.3	2.9	2.5
	계	6.6	3.6	4.3	4.7	3.8	3.1
등 유	유	3.1	3.1	3.1	4.9	4.6	4.1
경 유	유	17.4	18.1	19.6	20.1	20.6	20.7
중 질 유	경 질 중 유	1.6	1.7	1.8	2.0	1.5	1.2
	중 유	2.6	2.4	2.0	2.0	1.0	0.7
	병 커 C 유	55.0	55.9	53.4	50.0	50.7	52.2
	계	59.2	60.0	57.2	54.0	53.2	54.1
나 프 타	유	7.5	9.5	10.0	10.4	11.7	11.8
제 트 유	유	3.4	2.7	3.3	2.9	2.4	2.6
L P G	유	1.0	1.6	1.2	1.7	2.5	2.6
용 제	유	0.4	0.3	0.3	0.2	0.2	0.1
아 스 팔 트	유	1.4	1.1	1.0	1.1	1.0	0.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류 소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의 경우 73년 6.6%에서 80년 3.8%로 줄어들었고, 특히 고급휘발유는 정부의 高油價政策에 따라 73년 1.9%에서 80년 0.9%로, 81년 상반기중 0.6%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산업용 벙커C油도 73년 55%에서 80년 50.7%로 감소하였다. 한편 LPG도 전체 소비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지만 수요가 급증하여 73년 1%에서 80년 2.5%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해방지에 따라 低硫黃 燃料油의 공급이 점차 확대될 展望이다.

이에 따라 국내정유사들은 既存常壓증류시설을 개조하여 제품의 경질화 추세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輕質油 專用設備를 건설, 超重油에서 燈油와 輕油를 추출하는 重質油 分解施設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直接脫黃 시설을 조속히 건설하여 국내 수요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국내 정유사들은 투자기반을 상실한 가운데에서도 수요변화에 따른 施設代替投資를 위하여 所要財源를 확보하여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4. 結論 - 石油產業의 進路

국내石油產業이 총에너지중 단순히 석유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관념이 업계와 정부에 존재하는 한 石油자원의 절대적 有限性和 함께 원유의 단순導入 精製방식에 의한 소위 Independent Refinery로서의 국내 석유산업의 한계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산업이나 철도산업이 단순

히 영화제작이나 철도수송에 집착하려는 經營近視 (Managemet Myopia)적인 思考로 인하여, 사양화길을 재촉하다가, 영화산업은 오락산업 (Entertainment Industry)으로, 철도산업은 수송산업 (Transportation Industry)으로 인식됨으로써 컬러 TV나 고속도로 등장 및 항공수송의 보편화에 대응하여 계속 기업으로서 안정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듯이, 이제 국내석유산업은 단순히 石油에너지를 供給하는 기업에서 탈피, 綜合에너지 기업으로 인식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石油 및 에너지 消費構造의 變化에 적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에너지源의 開發 및 획득을 통하여 지속적인 成長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당면한 營業缺損을 製品價格을 통하여 適正利益을 보장받음으로써 일단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現행油價制度를 정유산업의 實質利益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改善함으로써, 에너지産業에의 再投資를 위한 기반을 造成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低硫黃燃料油 中間留分 및 重質油分解 시설을 조속히 건설함으로써, 전통적인 석유공급기업으로서 안정의 터전을 공고히 하고,

둘째, 장기적으로는 석유산업의 上流부문과 下流부문을 개발 石油產業의 垂直的 系列化를 통하여 기존 석유산업으로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새로운 에너지원의 확보 및 代替에너지의 개발을 통하여 綜合에너지 기업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할때, 오늘날 한국 석유산업은 장기적으로 安定과 成長을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창조하자 民族文化

이룩하자 正義社會